



주옥같은 미술걸작 디지털기술로 재현

세계적인 명화 120점을 국내 디지털기술로 재현해 전시를 펼쳐 '뜨거운 감자'가 된 기업이 있다. 엠앤제이코퍼레이션은 디지털 이미지 프린팅 응용기술을 개발해 서양미술사의 대표작들을 색감과 질감을 그대로 복제해 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입증시켰다며 주목을 받고 있다.

글 권경희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고흐의 '해바라기', 보티첼리의 '수태고지', 램브란트의 '자화상',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 등 교과서나 미술 서적들을 통해 볼 수 있었던 전세계 명화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거장의 숨결'전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동원해 서양미술사에 등장하는 명작들을 부활시켰다. 한국에서 단 한 점도 보기 힘든 루브르·에르미타주·메트로폴리탄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주옥같은 걸작들을 무려 120점이나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화려한 액자 속에 원화의 색감과 질감을 디지털 기술로 그대로 재현해 내 진짜 뽑치는 가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의 현주소도 확인할 수 있다. 캔버스천의 실오라기 자국이 생생하고, 그림 표면에 유화 냄새까지 나는 작품들을 모두 가짜라고 보지 않는 한 감상의 느낌도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다.

문화와 IT 만나요 가치창출

저작권이 소멸된 명화를 스캔 프로세싱 출력해 낸 복제품들은 진짜와 똑같기 때문에 원화를 보나 이번 전시에 나올 작품을 보나 감동의 차이가 없다고 엠앤제이코퍼레이션 측은 주장한다. 단 복제 명화는 원화에 비해 가로·세로 5cm씩 작다. 오리지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크기를 다르게 했다는 게 설명이다.

1백년에 한 번 국내 전시를 가질까 말까 한 걸작들을 6개월만에 현실의 작품으로 실현시킨 이가 바로 엠앤제이 오명현 사장이다.

'거장의 숨결'을 탄생시킨 디지털 이미지 프린팅 응용기술은 적용 범위가 무한하다. 모나리자 원화의 느낌을 그대로 담은 블라루스도 등장할 수 있고, 작은 액세서리나 넥타이, 손수건부터 건물 외벽의 벽화, 내부 인테리어 등 의식주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엠앤제이도 여러 산업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며 오명현 사장은 희색을 띠었다.

오 사장은 "디지털 이미지 프린팅 기술은 '거장의 숨결'을 통해 선보이게 됐다"며 "일반인들도 쉽게 기술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미술전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벽화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중앙대 신축건물에 대학발전기금 기부자들의 얼굴을 벽화의 일부로 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발전기금 기부자의 기념화 작업은 다른 대학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돼 현재 용인대, 외국어대, 인천대를 비롯한 8개 대학과도 협의중이다. 유한김벌리와 기술제휴로 기존의 날염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 전 공정을 디지털화해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져 패션계에 새로운 혁명을 예고하고 있다는 얘기도.

'거장의 숨결'이 탄생하기에는 예술인과 IT인의 만남이 있었



기에 가능했다. 오 사장은 “본래 예술을 하고 싶은 꿈을 버리지 못해 예술의 전당 미술부장 출신들과 잦은 만남을 가졌다. 그러던 중 이영석 미술행정가가 국내에 들여올 수 없는 걸작들을 그대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기술이 없다는 말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한 후 3개월만에 완성했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그동안 예술인은 예술인끼리 IT인은 IT인끼리 놀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새로운 산업 창출이 어렵다”며 “문화와 IT가 접목해야 고부가가치 산업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오 사장은 비즈니스를 통해 두 산업간의 산과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역경 딛고 81억 매출 꿈꿔

엠앤제의 지난해 매출은 13억원. 올해 예상 매출은 81억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같은 매출이 발생한 것도 최근의 일. 2000년에 한진중공업 사장 자리를 박차고 ‘벤처신화’를 꿈꾸며 창업의 길로 나선 지 만4년 동안 오 사장이 봉급을 가져간 것은 고작 두 번 뿐이다. 직원들 나눠주고 돌아올게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니 고생도 이만저만했을 리 없다.

처음 KAIST 출신들과 화려한 꿈을 꾸며 시작한 사업은 여러 모로 한계에 부딪혔다고 한다. 특히 중견기업 봉급 사장으로 있을 때는 벤처 사장으로 성공이 쉬울 듯 했지만 자신이 경영자였지 사업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잘 갖춰진 시스템 속에서 결정만 잘 내리면 아래에서 척척 알아서 진행될 중견기업 사장과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챙기고 직접 해야만 하는 벤처 사장이 같을 리 없었다.

2년 동안의 말미를 주고 적극적인 내조를 하던 아내도 2년이 넘으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뾰족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처음 함께 시작한 사람들도 모두 떠났다고 한다. 이에 오 사장도 한계에 이르기 시작한 것. 세상에 혼자라는 생각에 사업을 접겠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너무나 선명한 목소리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에 벌떡 일어나 무작정 버스를 탔다고 한다. 버스 종점에 이르자 어느 한 교회 앞에서 있었다고 한다. 무작정 목소리에 이끌려 나선 것이 그가 태어나 처음으로 가 보게 된 교회였다. 이를 계기로 신앙을 통해 다시 일어선다는 각오를 하게 됐다고 한다.

오 사장은 엠앤제를 지금까지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기술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모두 떠난 후 혼자서 기술개발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직접 하게 된 것. 두 달 전부터 봉급도 타게 됐고 ‘거장의 숨결’도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제품 문의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 오 사장은 이제 좀 더 큰 꿈을 꾀도 될 것 같으며 기쁨의 눈시울을 적셨다. 

인터뷰 / 오명현 엠앤제이코퍼레이션 사장 “미술전, DC산업 한 모델 불과”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미술전 ‘거장의 숨결’을 행사하게 된 배경은.

- 디지털콘텐츠라는 의미 자체를 온라인에서 보이는 것만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훨씬 방대하다. 디지털콘텐츠가 온라인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다. 이러한 가운데 인터넷 전송 속도와 양이 커지면서 멀티미디어 소스들을 모두 디지털화할 수 있는 시대가 펼쳐진 것은 제겐 경이로운 신세계의 시작이자 도전이었다. 이중 디지털 이미지프린팅 응용산업의 적용범위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예술과 이러한 기술이 연계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거장의 숨결’이라는 미술전을 펼치게 됐다. 이 미술전은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한 모델에 불과하다.

디지털 미술작 ‘거장의 숨결’의 특징은.

- ‘거장의 숨결’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400평 공간에서 서양 미술 2만년을 한번에 돌아보도록 하는 ‘세계 최초’ 전시다. 게다가 관객은 마음에 드는 그림을 구입할 수도 있다. 진짜와 똑같기 때문에 원화를 보나 이번 전시에 나올 ‘에디션’을 보나 감동의 차이가 없다. 단 복제 명화는 원화에 비해 가로·세로 5cm씩 작다. 오리지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크기를 다르게 했다. 무엇보다 캔버스 천의 실오라기 자국이 생생하고, 그림 표면에 바니시 칠을 해서 유화 냄새까지 난다. 정말 진짜 같은 가짜를 감동의 차이 없이 한국에서 맘껏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전시회에 대한 기대는.

-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거장의 숨결’전은 여러 명작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전시회보다 폭넓은 관객층이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시회가 될 것으로 본다. 이에 ‘거장의 숨결’전이 학생에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대중적인 전시이자 디지털 강국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보여줘 국내 미술시장에 새로운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전시가 됐으면 한다.